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찬미의 노래 '이카루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26일 광주에당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역대 지휘자들의 축전 속 최고의 작곡가들과 함께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한다. '이카루스'를 주제로 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 정기연주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정호·황호준 작곡가 위촉곡
대금 김상연·시립창극단 등 협연

슬픔서 벗어난 광주 시대정신
환상의 무대로 선보여

1994년 9월1일 창단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3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을 펼쳐며 남도 국악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이날 첫 무대는 백대웅 작곡의 '남도아리랑'이 장식한다.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위촉곡으로, 남도 지방 대표 민요인 진도아리랑과 밀양 아리랑을 주요 테마로 다양한 장단의 변화를 통해 역동적이며 서정적인 대비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로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위한

협주곡을 대금 연주자 김상연 전남대 교수와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서용석의 가장 대표적인 산조인 이 곡은 판소리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 음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굵은 선과 강한 힘이 느껴지는 산조로, 소리의 강약을 순발력 있게 변화시켜 극적 표현력 또한 탁월하다.

특히 이날 공연에선 국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에게 관현악곡을 의뢰, 위촉 초연하는 작품들이 기대를 모은다.

먼저 이정호 작곡의 '불의 춤' 공연이다. 미래로 향하는 정열적인 무곡(舞曲)으로, 국악관현악의 실험적인 색채감을 부여했다. 색다른 관현악법적 음 배치와 구성 및 변화무쌍한 리듬감으로 폭넓은 음색을 선사한다.

마지막 연주 작품은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 격인 황호준 작시·곡의 '이카루스'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카루스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한편으로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주의자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해당 작품은 아름다운 이상주의자로서의 이카루스를 자처하며 자신의 생애를 던져 이 시대의 빛나는 가치와 정신을 만들어 낸 이들을 위한 노래다. 광주의 시대정신을 더이상 진혼의 대상이 아닌 찬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번 연주에는 소리꾼 김윤희를 비롯해 광주



박승희 지휘자

왼쪽부터 대금 연주자 김상연, 작곡가 이정호·황호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창극단 단원 8명과 목포시립합창단, 카메라타전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는 "슬픔에서 벗어나 상처를 보듬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찬미의 노래를 선보이고 싶다"며 "K-국악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시

립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환상의 무대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주회는 7세 이상 관람가로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다. 티켓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문화

●요나스 메카스 시의 날

...19일 광주독립영화관



20세기 실험영화 거장 '요나스 메카스' 작품세계 들여다볼까

요나스 메카스(1922-2019)는 리투아니아 출신 시인이자 영화감독으로, 20세기 실험영화와 미디어아트를 개척한 인물이다. 미국 최초의 영화 평론자인 '필름 컬처'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뉴욕의 대안신문인 '발리지 보이즈'에 영화 비평을 연재하기도 했다.

파리 폰피두센터를 주관으로 전세계 20여개 예술기관이 '요나스 메카스 시의 날'을 개최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요나스 메카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6시3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요나스 메카스 시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요나스 메카스 시의 날'을 공동주최하는 전세계 예술기관은 프랑스 파리 폰피두센터를 비롯해 리투아니아 국립 오페라, 요나스 메카스 센터, 일본 도쿄 리투아니아 대사관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아트시네마와 광주독립영화관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의 프로그램 가이드에 이어 이서영 시인의 요나스 메카스 헌정 시 낭독, 요나스 메카스의 유작인 '레퀴엠'(2019, 8분) 상영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요나스 메카스 행사가 21세기 유튜브와 ott체제가 속화된 시기 영화의 지평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성평등 세상을 향한 '카운트 업'

15회 광주여성영화제 메인 포스터 공개

15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올해 캐치프레이즈를 '카운트 업(Count Up)'으로 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메인 포스터는 '카운트 업'을 형상화했다. 하나에서 시작해서 열다섯까지 숫자를 세는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윤연우 작가의 작품이다.

윤 작가는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위로 힘차게 점프하는 이미지가 완성된다.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달려왔다면 한 번쯤은 그동안 만들어 왔던 변화를 하나씩 세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도약을 담고자 했다"고 작품 의도를 밝혔다.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이번 포스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앞으로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담았다"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변화를 합을 만들어나가는 카운트 업(count up)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전남문화재단, 제로베이스 경매 참여작가 공모

20일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 접수

전남문화재단은 지역 작가들의 활발한 미술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국내외 미술계의 유명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주)서울옥션과 협업해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를 개최한다.

재단에서 주최하는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는 작품가 0원으로 시작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가격 결정을 전적으로 구매자들이 결정하는 경매다.

국내 최대 미술 작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에서 기획한 프로젝트로, 전남 작가들의 시장 진

출을 위해 재단과 2020년부터 협업해오고 있다.

공모 참여 작가의 작품은 서울옥션에서 최종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작품을 선정한다. 경매 참여 외에도 서울옥션 강남센터와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진행되는 'ART 001' 행사에서 전시를 갖고 서울옥션과 전남문화재단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참여 자격은 전남에 현재 거주 중이거나 전남 출생 또는 전남 소재 초·중·고·대학교를 졸업한 미술 분야 작가라면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오는 20일까지 재단에서 운영 중인 남도사이버갤러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